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교회의 목회와 가난한 주민들을 위한 선교활동을 계속하였다.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1년 2개월 동안 헤어져 있었다. 이 기간은 분명 우리에게서 시련의 시간들이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온갖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석방이 된 후에도 정치적인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고 더욱 더 악화되었으며 민중들의 삶 역시 더욱 고통스러워져 갔다.

독재의 폭압에 온 몸으로 저항하다



양 관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기학번, 민주청년협의회 중앙상임위 부의장, 평화통일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사, 우리문화연구소 대표(일본), 고려대 객원교수(현), 오사카경법대 객원교수(현)

1971년 서울대에 입학한 때로부터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어느덧 50대 중반, 장년에 접어들었다. 20대 혈기 팔팔했던 그 시절을 회상해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어렵게 서울대에 들어갔건만 대학 프레쉬맨으로서 또래들이 흔히 즐겼던 낭만을 즐기지도 못하고 데모에 휩쓸려 들었다. 독재권력의 중압에 숨막힐 것 같던 시절에 독재정권에 대놓고 저항한 것도 당시 대학생으로서의 낭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나는 연행, 제적, 강제징집, 가택연금, 투옥, 조작간첩, 망명 등 사형선고만 빼고 당할 만한 고난은 거의 다 당하는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을 걸어왔다. 긴급조치 시대를 중심으로 회상을 써달라는 주문을 받았지만 70년대를 독재권력에 온 몸으로 부딪치며 살았던 사람으로서 희미해진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70년대 전체를 회고해보려고 한다.

71년 봄, 동숭동 문리대 캠퍼스에는 노란 개나리꽃이 씨느강(문리대생들이 낭만을 회구하여 붙인 이름)가에 흐드러지듯 피어있었다. 하지만 영구독재정권으로 가느냐, 민주정치를 회복하느냐를 가름하는 4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학 초부터 캠퍼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무르익고 있었다. 69년 3선개헌을 국회별관에서 밤중에 날치기 통과시킨 박정희 대통령은 장

총단공원 마지막 유세에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조국근대화에 봉사하는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야당후보인 김대중 씨는 “이번에 박후보가 당선되면 총통제 종신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끝장날 것이다”고 피를 토하듯 호소했다. 당시 정치적 대립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김대중 후보의 호소에 감동받았던 나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회생을 위해서 박후보의 3선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학내 서클은 신입생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선배들이 총동원되었다.

당시 1학년만 대상으로 강의하는 교양과정부가 태릉 쪽 서울공대 안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학내 이념서클은 신입생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주 갔다. 후진국사회연구회의 선배들(심재권, 김상권, 이호웅, 장성효, 나병식, 김효순 등)의 선동에 감동(?)하여 회원으로 가입했고, 이 후 나의 인생은 투쟁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버렸다. 한국사회의 빈부격차문제, 독재권력의 부정부패, 분단의 역사와 민족적 고난 등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운동권 노래 등 투쟁가 실습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소위 말하는 의식화 의례)을 마치고 나면 순진한 신입생들도 투사로 변모해 갔다.

당시 박정권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선거 수법을 총동원했다. 유세과정에서 온갖 권력을 동원하여 김대중 후보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은 물론, 공무원 동원, 돈 뿌리기(고무신, 막걸리 공세 등)는 기본이었고, 투표부정(유명유권자 조작, 대리투표, 무더기 투표, 야당후보 지지자 투표방해 등), 개표부정(투표함 바꿔치기, 야당후보 지지표 바꿔치기 등)까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을 자행했다. 대학생들은 부정선거감시단을 만들어서 각 지방 선거구에 내려가 활동했지만 박정희 후보의 더러운 승리로 대선은 끝났다.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나중에 미국에 망명하여 미 의회에서 폭로한 바에 의하면 온갖 부정부에도 불구하고 개표부정만 하지 않았더라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한다. 김형욱 씨는 이 폭로로 박대통령의 격분을 사서 파리에서 납치 암살되었다. 김대중 씨가 집권했더라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빨리 발전했을 터이고, 국가의 균형발전도 적은 비용으로 진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또 80년 광주시민학살 등 수많은 국민의 희생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대선이 끝난 후 대학가는 부정선거규탄, 독재타도를 외치는 데모가 연일 일어났고 휴강의 연속으로 수업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여름방학으로 들어갔다.

여름방학에 들어간 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그러진 정치현실은 애써 외면한 채 즐길 생각이나 하고 있을 때, 내가 가입한 후사연은 농촌봉사활동과 70년 폭동이 일어났던 광주대단지로 도시빈민조사활동을 나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전남 진도출신이기 때문에 농촌 문제와 빈곤상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서클 선배들이 결정한 활동계획에 따라 경기도 농촌으로 농활을 떠났다. 낮에는 농사일을 돕거나 농로를 정비하고, 해가 지면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주민들과 농촌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주요한 활동을 했다. 농활이 끝난 후 바로 광주대단지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공동화장실도 모자라서 산비탈 여기저기에 대변이 널려 있고, 겨우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판자집이 늘어서 있었다. 서울에서 강제로 철거당한 판자촌민들은 이곳의 비인간적 환경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원래 그들은 농사짓던 사람들이었는데 농촌에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버리고 먹을 것을 찾아 서울로 몰려든 것이다. 서울과 경상도 주변 도시중심으로 공업화를 추진한 결과 호남농민들이 가장 많이 서울판자촌으로 몰렸고 결국 광주대단지로 강제 추방당한 것이다.

이렇게 농활과 도시빈민조사활동을 통해서 박정권의 공업화 추진의 모순을 목격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경제개발을 빙자한 독재정권을 우선 타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여름방학 동안 후사연 활동의 결론이었다.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몰랐던 한국정치사회의 모순을 인식하면서 분노하고 고민하며 2학기 투쟁을 준비했다. 이렇게 대학 신입생의 첫 번째 여름방학을 보냈다.

2학기가 개강되자 교련강화반대와 일본 사또수상 방한반대가 주요투쟁과제로 등장했다. 나는 후사연 교양과정부 회장을 맡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투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당시 학생운동은 학생회와 이념서클로 양대 축이 되어 전개되었다. 학생회에서는 원혜영 회장(현재 열린우리당 의원)과 조순용 대의원의장(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중심이 되었고, 서클에서는 후사연 회장인 내가 선두에 서게 되었다. 교련강화는 반독재투쟁의 중심거점인 대학캠퍼스를 병영화하여 군대식으로 통제하려는 데 저의가 있었다. 교련철폐운동은 전국대학으로 퍼져 나갔다.

9월 말에는 전국학생연맹(전학련)이 결성될 예정이었고, 나는 서울대 1학년을 대표하여 중앙위원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교련철폐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박정권은 위수령을 발동

하여 전국대학의 데모주동자들을 일제히 체포, 제적시키고 강제징집해버렸다. 당시 서울대는 단과대학별로 캠퍼스가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처벌도 단과대학별 주동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서울대 교양과정부도 일학년만 모여 있었지만 독자적으로 데모한 죄로 제적당하게 되었다. 학생회 간부로서 원혜영, 조순용, 김천홍, 서클회장으로서 나와 배기운(당시 사회법학회 회장, 전 국회의원) 5명이 제적되어 군대로 끌려갔다. 1971년 박정희의 종신집권을 향한 정치적 대결 속에서 나의 대학 1학년 생활은 미처 끝내지도 못한 채, 최루탄에 화염병과 투석으로 저항하다가 가을 낙엽과 함께 살벌한 병영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전국대학에서 데모주동자들이 제적되어 10월 26일, 28일 논산훈련소로 입소했다. 11월 말경이었던가, 연병장에 눈이 펄펄 날리는데 스피커를 통해서 아침이슬(김민기 작사 작곡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이 처량하게 흘러나왔다. 이름하여 우리는 '아침이슬 세대'로 불리게 되었다.

유신독재 하의 긴급조치 시대

반독재투쟁의 거점인 대학캠퍼스를 총칼로 평정한 박정권은 위수령 발동 후 딱 1년 뒤인 72년 10월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통일주체 대의원들이 요식행위로 투표하는 간접선거로 개헌, 종신집권의 길로 돌입했다. 73년 봄 박정권은, 강집되어 군복무에 충실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유신과업의 대열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복학시킨다는 명분으로 복학조치를 발표했다. 74년 4월, 제대를 몇 개월 앞두고 유신독재에 항거하는 소위 '민청학련' 사건이 터졌다. 나는 그해 8월 만기제대하여 황당해진 캠퍼스로 복학했다.

75년 봄, 서울대 캠퍼스가 지금의 관악산으로 이전했고 민청학련사건으로 학생운동의 뿌리가 거의 뽑혀버린 상황에서, 복학생들 중 일부가 다시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운동조직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71년에 제적당했다가 돌아온 대부분의 복학생들은 숨막히는 유신독재체제를 내심 강렬하게 비판하면서도 직접 행동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현실 준비로 바빴다. 하지만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파멸로 몰고 가는 유신독재를 묵인하지 못하고 독재타도라는 민주혁명을 꿈꾸는 나 같은 사람들은 후배들과 운동조직과 서클을 복원해갔다. 후사연의 맥을 이어간다는 전제하에 문리대가 사회대, 인문대, 자연대로 분리됨에 따라, 각각 다른 명칭으로 서클을 재건하기로 했다. 사회대는 사회복지연구회, 인문대는 문

백회에서 역사철학회로, 자연대는 과학사상연구회로 이름을 바꾸고 75년 관악캠퍼스에서 신입생회원 모집에 착수했다. 자연대 신입생모집은 저조했지만, 사복회와 역철회는 푹푹한 일학년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나는 후사연의 마지막 남은 멤버로서 후사연의 이념과 투쟁노선을 계승할 후배 양성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후배들이 그 후 긴급조치를 연발하면서 유신독재를 연장했던 박정권에 온 몸으로 항거하며 서울대 운동권의 주류로 활약하게 되었다. 75년 초,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민주인사들이 인혁당사건 관련자만 제외하고 대통령 특사로 석방되었다. 그리고 4월 초, 대법원에서 사형확정 판결이 난 다음날 새벽, 박정희 독재자는 서둘러서 인혁당 관련자들을 사형해버렸다. 그 날은 황사 탓도 있었지만 하늘도 잔뜩 흐려서 인혁당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을 애통해 하는 듯 했다.

그날 저녁, 종로 2가 뒷골목 포장마차에서 인혁당 사람들을 가차없이 처형해버린 박정희의 독기에 몸서리치면서 신동수 선배와 피눈물섞인 소주잔을 들이켰다. 자 이제부터 살기를 풍기는 독재정권과 어떻게 맞설 것인가. 우리도 독재자보다 몇 십 배 독기를 품지 않으면 앞으로 투쟁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직감적으로 들었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독재권력에 추종하고 있었지만 그나마 박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던 신문이 동아일보였다. 박정권은 동아일보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서 광고탄압을 했고 여기에 저항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된 동아일보 노조는 사주에게 압력을 가하여 무더기로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언론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하는 독재정권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성금을 모아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는 운동이 일어났다. 서울대에서도 박인배(물리학과, 현재 민예총 기획실장)를 중심으로 탈출반 멤버들이 관악캠퍼스 아크로폴리스에서 동아일보 탄압에 항의하는 마당극과 함께 시위를 벌였다. 독재에 대한 항거의 몸부림이 노란 개나리꽃이 일제히 터지듯 관악캠퍼스를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4월11일에는 서울농대생 김상진 열사가 유신독재를 비판하는 선언문을 남기고 할복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긴급조치9호의 발동과 522사건

4.19혁명이 미완의 혁명으로 좌절된 이후 해마다 4월이 되면 산야에 진달래가 일제히 피

어나듯이 대학가는 독재권력에 대한 항거로 출렁거렸다. 권력의 방패에 부딪치고 깨지고 끌려가며 우리 대학생들은 찬란한 봄 4월을 맞이하곤 했다.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시 구절이 신입생들의 환영 술자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읊어졌다. 인혁당 사형집행과 동아일보 탄압으로 학생들도 숨죽이리라 기대했던 박정권은 그래도 독재타도의 함성이 터지자 5.13일 긴급9호를 발동했다. 유신헌법과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과 저항을 금지하는 조치였다.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는 조치를 학생들이 묵과할 리가 없었다.

신학기 초부터 춘투를 계획하고 있던 차에 이호웅(당시 정치학과 복학생, 현 열린우리당 의원), 유영표(당시 인류학과 복학생, 현 민주화운동공제회 준비위원장) 선배와 김정환(당시 영문과 4학년, 시인), 천희상(당시 사대 2학년), 오연호(당시 사대 3학년)등 후배들과 긴급9호에 정면으로 맞장뜨는 거사를 꾸미기 시작했다. 소위 데모선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사준비는 빈틈없이 진행되었다. 디-데이 며칠 전 밤, 동송동 옛 문리대 캠퍼스 잔디밭에서 최종 점검하는 자리에서 후배양성과 후사를 위해 나는 빠지기로 결정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문리대 항거의 현장을 지켜온 마로니에를 비추는 잔디밭 위에서 우리는 결의의 소주잔을 삼켰다. 내가 남기로 한 것은 전략적 선택이었다. 몇 명밖에 안되는 복학생들 중에서 나까지 감옥에 가버리면 후배를 지도할 선배가 한 명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었다. 디-데이 하루 전날, 상도동 어느 허름한 주막집에서 천희상과 마지막 결의의 술잔을 나누었다. 후배를 먼저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선배의 심정은 참으로 착잡했지만, 나는 천희상의 등을 두드리면서 격려해 주었다. 지금도 회상기와 술자리를 하게 되면 그때 그 마지막 날 밤을 회상하곤 한다. 5·22데모는 서울대생들의 분노의 함성으로 관악산이 진동할 정도였다. 데모는 성공했고 많은 학우들이 연행되었다. 긴급9호로 학생들의 기를 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박정권은 매우 당황했고, 5·22데모의 주동자는 물론 관련자까지 색출하느라 혈안이 되었다. 거사에 참가했던 선 후배들은 당당하게 감옥으로 향했고, 나는 후사를 다짐하면서 홀로 남았다.

76년 서울대 축제촛불데모 사건

중신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체제에 대한 일체의 비판과 저항을 금지하는 긴급9호에 정면으

로 항거했던 서울대 5·22데모 이후, 76년 가을 서울대 개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를 이용하여 촛불데모가 일어났다. 그때까지 서울대 반독재운동은 긴 잠복기로 들어갔다. 서울대에는 후배들을 직접 지도하는 선배로서 복학생 중 오직 나 혼자 남게 되었다. 자연히 정보부, 경찰, 학교당국이 제일 주목하는 감시 1호로 지목되었다. 경찰기동대가 캠퍼스 내에 상주하고, 정보기관원 경찰정보형사들이 상주하면서 감시하는 살벌한 조건 하에서 나는 사회복지연구회와 역사철학회를 중심으로 내일의 민주투사가 될 후배들을 지도 양성해갔다.

역사, 정치, 경제, 사회문제, 민족분단과 국제관계 등 한국사회의 내부적 모순을 인식하고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MT를 가 밤새워 토론하고, 투쟁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 운동기요를 연습했다. 여름방학이 되면 농촌활동을 가서 낮에는 농민의 고통을 체험하고 밤이면 총괄토론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총체적 모순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갔다. 사복회에서는 75학번(관악캠퍼스 1세대)에 유종성(사회복지학과, 전 경실련 사무총장), 조희연(사회학과, 현 성공회대 교수), 심상원(사회학과, 현 창원대 교수), 역철회에서는 74학번 전재주(영문과), 75학번 반병율(국사학과, 현 외대교수), 이증연(국문학과)이 리더로서 성장해갔다.

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고, 김대중, 문익환 목사를 비롯하여 많은 인사들이 투옥당했다. 재야인사와 기독교권에서는 산발적으로 저항이 일어났다. 관악산에 봄이 왔지만 서울대에서는 운동권 내부에서 '학생선도투쟁론'과 '장기준비론'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해 봄도 별다른 데모 없이 지나가 버렸다. 단지 75년 4월11일 서울농대생 김상진이 할복자살한 지 1주년이 되어 서클 후배들을 모아놓고 비밀리에 추도식을 올렸다.

'민주구국선언문'을 일반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서울대 내 화장실과 강의실에 살포하는 활동을 하면서 투쟁의 불을 지피는 작업을 했다. 유인물살포사건으로 인해서 엉뚱한 학생들이 정보부와 경찰의 조사를 받는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다. 76년 여름방학 농활을 통해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축적해 온 투쟁역량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서울대운동권에서 논의되었던 두개의 투쟁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한다. '장기준비론'은 주로 독재체제를 타도하기 위해 학생, 재야, 교회의 산발적인 저항 만으로는 불가

능하므로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소위 민중세력으로 불렸던 계층을 의식화시켜서 그들이 반독재투쟁의 중심에 서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편 '학생선도투쟁론'은 민중세력과 학생, 재야세력이 연대하여 민중봉기의 형태로 투쟁전선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민중이 반독재투쟁의 전면에서 나서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투쟁지원이 풍부한 학생들이 먼저 선두에서 반독재투쟁을 전개해야만 일반대중에 확산시켜 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장기준비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의 투쟁역량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생 시절에 정보기관에 드러나는 활동은 삼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로 견지하고 있었다. 이범영(당시 법대생, 전 민청연 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법학회가 이런 노선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범영과 나는 논쟁을 자주 했다.

76년 가을 학기에 들어서 그동안 각 서클별로 축적된 역량이 많고, 1년 이상이라는 긴 기간동안 학생운동의 중심이라고 자부하는 서울대에서 데모를 일으키지 못한데 대한 자책 분위기가 퍼지면서 이번 가을에는 거사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기동대와 정보요원들이 학내에 깔려있는 상황에서 일반학생들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그룹에서 논의한 뒤 축제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잡혀갔다. 주동자를 쉽게 잡아낼 수 없는 자연발생적 데모방법을 계획하게 된 것이다. 10월 15일, 임진택을 중심으로 한 탈춤반이 감나무골에서 마당극을 공연하고, 그 자리에서 뒷풀이로 술자리가 마련된다는 계획을 알고 거사를 준비하던 그룹이 마당극 자리를 활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당일 마당극은 유신독재에 대한 정치적 풍자를 신랄하게 하면서 분위기를 뜨겁게 돋구웠다. 마당극의 마지막은 대체로 관중과 마당패가 어우러져 춤추고 노래하게 되어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지막에 마당패에 뛰어들어 선동적인 구호를 외치고 춤추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해버렸다. 얼마 후 관중들이 교문 쪽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햇불데모로 번지게 되었다. 75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관악캠퍼스에 항거의 몸부림이 터져 나온 것이다. 어떤 체제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억압적 분위기 속에서 운동권 내부의 투쟁역량은 성냥불만 당겨도 확 불이 붙을 정도로 확산되어 있었다.

서울대 축제사건, 또는 감나무골 사건이라고 불리는 야간의 햇불데모는 잠깐 동안에 끝났

지만 대학당국과 정보기관은 대단히 당황했고 주동자 색출에 혈안이 되었다. 선언문도 없이 '유신철폐, 독재타도'라는 구호를 햇불과 함께 외친 사건인데, 당시 마당판에 내가 참가하고 있었던 것을 기관원들이 목격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항상 감시받고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선배 집에 신세를 졌다. 영등포 큰 형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큰형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제 밤부터 형사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동생을 찾아내라고 온갖 협박을 한다고 하소연했다.

큰형은 학원선생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는데 형사들이 학원강의도 하지 못하게 방해하여 학원에서 목이 잘릴 판이라고 울먹였다. 내가 계속 도망쳐 다니면 형님은 직장에서 해고당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형수님과 어린 조키들의 생계는 막연하게 될 것이 뻔한데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고민 끝에 경찰에 자수하기로 결심했다. 관악경찰서로 끌려가보니 박석운 등 후배들도 이미 많이 끌려와 있었다. 정보과장이 나를 직접 심문하면서 나를 주동자로 만들어 내려고 애를 썼다. 주동자없는 데모인데 주동자를 조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내가 계속 부인하자 남산 밑에 있는 안가로 끌고 갔다. 방음벽이 되어있는 취조실에서 구타와 잠 안재우기 등으로 고문하면서 주동자라는 자백을 강요했다.

광주경찰서장으로 있는 숙부를 자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나는 햇불을 준비한 팀을 사실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다. 결국 마당극판에 참가하여 선동한 것으로 조사는 끝났다. 전재주는 나보다 나중에 잡혀서 조사받았는데 결국 두 사람이 주동한 것으로 사건은 결론지어졌고 우리는 경찰서 유치장에만 갇혔다. 제명당하는 처벌로 끝나게 되었다. 내가 선배로서 운동권의 중심에 있었고, 그래서 정보기관이나 경찰에서는 나를 눈에 가시처럼 여겨왔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나를 서울대에서 추방한 것을 그들은 큰 성과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데모다운 데모 한번 못해 보고 두 번째로 제적당한 것이 억울했지만 내가 잘리고 난 후 장기준비론에 빠져 학생투쟁을 기피했던 그룹에게 큰 자극제가 되었던 것 같다.

그해 12월 졸업을 앞둔 법대 4학년 이범영, 박석운, 백계문은 박동선계이트를 비판하는 데모를 벌이고 감옥으로 향했다. 서울법대를 졸업하면 그래도 한국사회에서는 대우받는 직장

이 보장되어 있었건만 그들은 안락한 소시민적 행복을 버리고 유신독재타도를 외치고 편한 직장 대신에 감옥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후 77년부터 내가 지도했던 서클 후배들(유종성, 심상환, 조희연, 반병율, 이증연, 유기홍, 김명인, 김유선 등)은 서울대 학내투쟁의 선두에 서서 반독재 투쟁을 이끌어가게 되었다.

에알이로즈를 아느냐?



원혜영_ 서울대 역사교육학과 1학년. 제23대 부천시장, 제14대 국회의원, 풀무원식품 창업, 제7대 국회의원(부천·오정,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현))

교련반대투쟁이 대학가를 휩쓸던 1971년 10월 15일, 위수령이 발동되어 학생운동권 1천5백여 명이 연행되고 주요 핵심 1백74명이 제적되었다.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학원을 불순세력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불순세력을 학교 밖으로 영구히 추방한다”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당시 서울대와 고려대는 신입생들을 따로 교양학부로 편제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 저학년의 피해가 컸다. 다른 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이 개별적으로 3, 4학년을 따라 데모에 참가했던 반면 서울대와 고려대는 교양학부 차원에서 대거 데모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서울대에서는 나를 포함해 법대의 배기운과 문리대 조순용 등이 1학년으로서 제적을 당했다.

제적된 학생들은 군대에 강제입영하게 됐는데 대부분 최전방에 말단 소총수로 배치됐다. 최전방에서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직접 보고 고생 좀 하라는 정권의 배려(?) 때문이었다. 나는 철원의 보병6사단 7연대 1대대 3중대 2소대 1분대 4번 소총수로 배치됐다. 당시는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낮을 때라 중졸만 되어도 행정병으로 배치되곤 했는데 위수령 때 강제징집된 대학생들은 육군본부에서 직접 배치계획을 짜 전방으로 보냈다.